

구약논찬

제14권 4호(통권 30집) 2008년 12월 31일

천 사무엘(한남대)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본 연구는 지난 40여 년 동안 토론되어 온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잠언서의 문학적 구조의 통일성, 지혜의 기원과 개념, 사회적 상황과 신학적 경향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데 구약 지혜문학의 연구 주제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Cheon, Samuel

Interpretive Issues for the Study of the Book of Proverbs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¹⁾

천 사무엘 | 한남대

1. 들어가는 말

잠언은 율기, 전도서 등 다른 지혜 문서(wisdom Literature)와 함께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의 연구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²⁾ 이들을 제외한 구약의 책들은 대부분 역사와 연관성이 있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재구성이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 등을 서술하기 위하여 연구되었지만, 지혜 문서는 역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것이다.³⁾ 그리하여 계약, 역사, 선택 등의 개념을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초기 유대교의 전형적인 요소로 간주해 왔던 구약학자들은 지혜 문서를 연구의 걸림돌로 여기거나 무시해

1) 본 논문은 2008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2) 지혜문학이란 용어는 원래 율기, 잠언, 전도서를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이와 유사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지칭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램버트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용어를 바빌론 문학에 적용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적 삶을 강조하는 구약의 지혜문학과는 달리, 소위 바빌론의 지혜문학은 제의 및 주술의 기술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W.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1쪽.

3) 지혜문서의 학문적 소외에 대해서는 천 사무엘, "구약성서의 지혜문학과 창조신학," 『기독교문화연구』 2권 (1997), 307-21쪽을 보라.

야 되는 것으로 분류했다.

지혜 문서 연구의 핵심에 서 있는 잠언 연구 역시 이러한 구약학계의 학문적인 경향을 피할 수 없었다.⁴⁾ 다른 지혜 문서들처럼 잠언에도 전통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개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관시킬 만한 내용도 없다고 여겨졌다.⁵⁾ 또한 고대 근동 문학과 비교 연구는 잠언의 기원이 고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이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비이스라엘적인 요소들이 후대에 이스라엘 신앙으로 토착화되었다는 것이다.⁶⁾ 특히 잠언에 대한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영향으로 거론되는 이집트의 “아멘-엠-오페의 교훈”(Instruction of Amen-em-ope)과 잠 22장 17절-24장 22절의 비교 연구는 잠언 자료들의 세속성과 비이스라엘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⁷⁾ 잠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양식 비평 등을 통하여 더 오래된 고대 이스라엘의 전승이나 자료를 찾고 거기에 중요성을 더 부여하려는 구약학계의 경향과 맞물려 잠언을 연구, 평가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⁸⁾

잠언을 포함한 지혜 문서 연구가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밖에 있었던

-
- 4)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547쪽. 차일즈는 잠언을 지혜문학 연구의 일차적인 자료로, 그리고 율기와 전도서를 이차적인 자료로 여기는데, 이는 잠언이 지혜문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R. E. Murphy, *The Tree of Life: An Exploration of Biblical Wisdom Literature*, (New York: Doubleday, 1990), 1쪽. 지혜문학에서 역사, 계약, 선택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 외경에 속하는 집회서 44 - 50장과 솔로몬의 지혜서 11 - 19장에서인데, 이들은 매우 후대의 문서들이다. 참조 천사무엘, “구약지혜전승과 신약성서,” 「구약논단」 제 18집 (2005), 128-144쪽.
- 6) R. N. Whybray, *Wisdom in Proverbs: The Concept of Wisdom in Proverbs 1-9*, (Chatham: SCM, 1965), 104쪽; R. E. Clements, *Wisdom in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92), 94쪽; J. D. Curri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7), 205쪽.
- 7) R. N. Whybray, “Book of Proverbs,” J. H. Hayes (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Vol. 2, (Nashville: Abingdon, 1999), 321쪽; K. J. Dell, *The Book of Proverbs in Social and Theologic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65쪽. 기원전 1200-100년경에 만들어진 이 이집트 문서는 1920년대 초에 발견되었는데, 아돌프 어만(A. Erman)의 논문을 시작으로 잠언과의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참조 A. Erman, “Eine ägyptische Quelle der ‘Sprüche Salomos,’” *SPAW* 15 (1924), 86-93쪽. 이에 대해서는 G. E. Bryce, *A Legacy of Wisdom: The Egyptian Contribution to the Wisdom of Israel*,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79), 15-56쪽을 보라.
- 8) 잠언의 자료 비평적인 연구는 19세기 후반에야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솔로몬의 저작권설은 유지되었다. 구약의 자료 비평적 연구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늦은 것이다. G. von Rad, *Wisdom in Israel*, (London: SCM, 1972), 8쪽.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구약학자들의 중심에 서 있어 왔다.⁹⁾ 구약 성서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 계시 중심 신학의 탈피, 창조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다원화 세계에 대한 관심 등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신학적 경향과 요청은 구약학자들로 하여금 지혜 문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¹⁰⁾ 그리하여 최근 잠언에 대한 논문과 책들도, 차일즈가 표현하는 것처럼 “홍수”를 이를 정도로 많아졌다.¹¹⁾

본 논문은 최근 잠언 연구에서 제기되는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최근 잠언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잠언의 문학적 통일성, 지혜 개념, 사회적 상황, 신학적 경향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2. 문학적 구조의 통일성

잠언은 하나의 책이지만, 오랫동안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다양한 문서들의 모음집(collection)이라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잠언에 있는 각 표제들(잠 1: 1; 10: 1; 22: 17; 24: 33; 25: 1; 30: 1; 31: 1)은 이 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서들도 함께 편집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¹²⁾ 또한 잠언에 있는 교훈(instruction), 격언(saying), 알파벳 시(acrostic poem) 등은 다양한 장르의 문서들을 엮은 책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잠언은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와 장르를 매우 느슨한 형태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연속성이나 통일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잠언을 어떻게 통일성을 갖춘 하나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최종 편집자가 한 권으로 편집한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9) J. A. Emerton, "Wisdom," G. W. Anderson (ed.),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Essays by Members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Oxford: Clarendon, 1979), 214쪽.

10) 이에 대해서는 천 사무엘, *위글*, 312-15쪽 참조.

11) B. S. Childs, *위글*, 547쪽.

12)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들"(잠 1: 1; 10: 1); "지혜자들의 말씀"(잠 22: 17); "이것들도 역시 지혜자들에 속한 말씀"(잠 24: 33); "이것들도 역시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잠 25: 1); "마싸 사람 아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잠 30: 1); "마싸왕 르무엘의 말씀으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것"(잠 31: 1).

잠언의 구조적인 통일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먼저 스케한(P. W. Skehan)의 이론을 들 수 있다.¹³⁾ 그는 잠언의 줄(line) 개수가 하나의 편집자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배열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잠언은 솔로몬의 성전과 연결된 3층 건물(왕상 6: 10)을 모델로 하여 설계된 소위 “지혜의 집”(잠 9: 1)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각 단락(column)의 줄 개수는 건축물의 기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일정한 형태로 배열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잠언의 줄 개수는 총 930개인데, 이는 잠 1장 1절에 나오는 세 이름, 솔로몬, 다윗,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자음들을 숫자로 환산하여 합할 때 나오는 숫자이다.¹⁴⁾ 즉 375(솔로몬) + 14(다윗) + 541(이스라엘) = 930 (총 줄 수). 둘째로,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들은 1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단락은 건축물의 기둥에 해당한다. 즉 각 층마다 15개의 기둥이 배열된 3층 건물에 총 45개의 기둥이 있는 형태이다. 첫 부분(잠 1 - 9장)은 259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15개의 단락 중 22개의 줄을 가진 7개의 단락(잠 9: 1)이 중앙에 배열되어 있다. 둘째 부분(잠 10: 1 - 22: 16)은 표제(잠 10: 1)에 있는 “솔로몬”이라는 히브리어의 수가(numerical value)처럼 375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15개의 단락 모두 25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부분은(잠 22: 17 - 31: 31) 296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잠 22장 17절-24장 32절과 30장 7절-33절은 표제(잠 22: 17; 24: 23)의 “지혜자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카밈의 수가(118)에 맞게 118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고, 잠 25-29장은 표제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히브리어 수가(140)에 맞게 140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스케한은 히브리어의 수와 줄의 개수에 의존하면서, 잠언 전체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최종 편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 930개의 줄 개수를 세는 그의 방식은 의도적으로 짜 맞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그는 총 930개의 줄에 잠 1장 16절, 8장 11절, 24장 33-34절을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여기면서 제외시켰다.¹⁵⁾

13) P. W. Skehan, *Studies in Israelite Poetry and Wisdom*, (Washington, D. C.: CBAA, 1971), 9-45쪽.

14)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로도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375, 다윗은 14, 이스라엘은 541의 수가(numerical value)를 가지고 있다.

15) 스케한이 잠 1: 16 8: 11; 24: 33-34의 4 줄을 제외시키는 이유는, 잠 1: 16의 경우 일부 칠십인 역 사본들에 없고, 잠 8: 11은 1인칭을 사용하는 8장의 다른 본문들과는 달리 3인칭으로 나오며,

또한 각 표제들도 줄의 개수를 세는 데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잠언을 건축물과 비교하면서, 최종 편집자의 의도된 계획하에 치밀하게 구성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각 단락이 내용상 어떻게 치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한의 이론은 잠언이 최종 편집자에 의해 치밀하게 구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¹⁶⁾

잠언의 문학적 구조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시도는 맥케인(W. McKane)의 주장을 들 수 있다.¹⁷⁾ 그는 잠언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 교훈과 지혜 문장(wisdom sentence)으로 분류하고 잠 1 - 9장, 22장 17절 - 24장 22절, 31장 1-9절은 전자에 그리고 잠 10장 1절 - 22장 16절, 24장 23-34절, 25 - 29장은 후자에 속한다고 보았다.¹⁸⁾ 그에 의하면, 교훈 부분에 속하는 내용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 소개된 국제적인 장르인데, 이집트에서는 관리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일반화된 세속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 반면 지혜 문장 부분에 속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교육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각각의 지혜 문장은 하나의 완전한 실재(complete entity)를 나타낸다. 맥케인은 이 두 종류의 지혜 전승이 예언자들의 야훼 신앙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야훼 신앙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세속적인 지혜 전승들이 야훼 신앙에 의하여 하나로 결합되어 잠언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 전승을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보다 더 늦은 시대의 것이라는 맥케인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워스(G. Weeks)는 지혜 문학 안에 종교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은 이집트나 다른 비 이스라엘 지혜 문서에 이미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집트의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에 수입되기 이전에, 이미 종교적인 요소들이 지혜 문학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¹⁹⁾

잠 24: 33-34은 잠 6: 10-11을 반복하는데 잠 24: 30-32의 인칭 사용과 비교해 볼 때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16) R. E. Murphy, *윳골*(1990), 28쪽.

17) W. McKane, *Proverbs*, (London: SCM, 1970).

18) 맥케인은 잠 30장; 31: 10-31은 이 두 범주에서 넣지 않고 “시들과 숫자 격언들”(poems and numerical sayings)로 분류했다.

19) S. Weeks, *Early Israelite Wis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73쪽.

최근 델(K. J. Dell)은 맥케인과 유사하게 잠언을 교훈(instruction; 잠 1 - 9장, 22: 17 - 24; 22: 30; 1-14; 31장)과 격언(saying; 잠 10: 1 - 22: 16; 24: 23-34; 25 - 29장; 30: 15-33)으로 분류했다.²⁰⁾ 그녀에 의하면, 이집트 문서들과 유사한 전자는 교육적 상황을 더 강조한 반면, 가족, 부족, 민속 등의 구전 전승이 문서로 된 후자는 윤리적 상황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델은 전자에서 종교적인 요소를 후대의 첨가로 보는 맥케인에 반대하면서, 종교적인 요소는 윤리적, 교육적 요소들과 쉽게 함께 할 수 있으며, 야훼와 지혜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전자와 후자가 비록 다른 사회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신학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잠언의 다양한 모습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김 시남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²¹⁾ 그는 잠언을 구성하는 여러 모습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와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이들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잠언의 통일성을 찾으려는 또 다른 시도는 차일즈(B. S. Childs)의 정경 해석 방법을 들 수 있다.²²⁾ 차일즈는 잠언을 잠 1 - 9장과 나머진 잠 10 - 31장으로 나누어 전자가 후자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지침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²³⁾ 즉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는 잠 1 - 9장이 지혜를 인간의 합리적인 지적 활동으로 묘사하는 잠 10 - 31장의 서론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기의 편집으로 여겨지는 전자의 신학적 프리즘을 통하여 더 오래된 세속적 지혜 전승인 후자를 읽을 때, 정경 안에서 잠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고 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차일즈는 지혜의 형태를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엄밀하게 나누는 맥케인 등의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즉 지혜는 하

20) K. J. Dell, *윗글*, 88-89쪽.

21) Seenam Kim, *The Coherence of the Collections in the Book of Proverbs*, (Eugene: Pickwick, 2007).

22) B. S. Childs, *윗글*, 520-34쪽.

23) 머피, 폭스 등도 잠 1-9장이 잠언 전체의 서론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 E. Murphy, *Seven Books of Wisdom*, (Milwaukee: Bruce, 1960), 9쪽; M. V. Fox, "Ideas of Wisdom in Proverbs 1-9," *JBL* 116/4 (1997), 613쪽. 그러나 산도발은 잠언의 서언(prologue)인 잠 1: 2-6(7)이 잠언 전체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해석학적 키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T. J. Sandoval, "Revisiting the Prologue of Proverbs," *JBL* 126/3 (2007), 456쪽.

나님의 선물이자 동시에 인간의 합리적인 지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지혜는 이 둘 사이에서 변증법적으로 추구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일즈는 정경의 일부로서 잠언 전체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고백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잠언의 다양한 자료들과 전승들을 신정통주의적 계시 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잠언을 정경의 일부로 여기는 데 걸림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차일즈의 이러한 주장은 잠언의 특징인 다양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상과 같이 최근 잠언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는 이 책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잠언은 자료들을 단순하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최종 편집되었다는 것이다. 잠언의 자료와 그 양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통일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잠언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본문의 신학적, 문학적, 언어학적 연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는 해석학적 과제이다.

3. 지혜의 기원

잠언에서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어머니 혹은 매력적인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지혜는 태초의 창조물이자 창조의 조력자이며(잠 8: 22-31), 예언자를 연상시키는 어투로 선포하기도 한다(잠 1: 20-33). 이러한 지혜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먼저, 잠언의 지혜가 이집트의 영향이라는 주장이다. 카야츠(C. Kayatz)는 잠 8장을 연구하면서, 잠언의 지혜 개념이 고대 이집트의 신들, 특히 마아트(Maat) 여신 개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²⁴⁾ 카야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폰 라드도 잠언의 지혜가 이집트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다윗-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궁중 학교 교사들이 이집트에서 도입된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아 지혜 개념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 이스라엘의 교사들이 이집트의 질서의 여신에 관

24) C. Kayatz, *Studien zu Proverbien 1-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6), 93-119쪽.

한 사고에 의존했고 특색 있는 개별적 표현들조차 빌려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²⁵⁾ 여기에 언급된 질서의 여신은 헬리오폴리스의 종교 체계에 속하는 마아트를 뜻하는데, 태양신 아툼(Atum)의 딸로서 모든 사물에 바른 질서를 놓기 위하여 태초에 인간에게 내려와 이 세상에서 법, 세계 질서, 정의 등을 구현한다고 여겨졌다. 이것은 잠언의 지혜 개념이 고대 이스라엘의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왕국 형성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많은 도전을 받았다. 특히 마아트를 잠언 지혜의 원형으로 여기려는 주장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 둘의 공통점만 강조했다 그 차이는 간과했다는 것이다.²⁶⁾

지혜의 기원을 고대 이스라엘의 가정(family)이나 씨족(clan) 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²⁷⁾ 예를 들면, 게르스텐베르거(E. Gerstenberger)는 폰 라드가 주장하는 소위 “학교 지혜”(school wisdom)가 있기 전에 “민속 지혜”(clan wisdom) 혹은 “부족 지혜”(tribal wisdom)가 이미 있었다고 주장했다.²⁸⁾ 즉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는 반 유목 시대와 문학 이전의 사회(the pre-literate society)에 부족 안에서 형성되었던 자연적인 현상 혹은 토착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잠언과 십계명을 비교하면서, 법 형태(legal form)와 가족 윤리 형태(family ethic form)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기원은 같다고 했다. 이것은 율법과 지혜가 전통적인 부족 사회에서 기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베스터만(C. Westermann)은 격언들(proverbs)이 궁중 학교나

25) G. von Rad, *율법*, 153쪽. 다윗, 솔로몬 시대 지혜운동에 대해서는 박 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제8집 (2000), 133-149쪽.

26) 예를 들면, 지혜가 아훼의 자녀로 묘사되는 것처럼 마아트도 신의 딸로 묘사되지만, 마아트는 지혜처럼 어떠한 연설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조 M. V. Fox, *Proverbs 1-9*. (New York: Doubleday, 2000), 335-36쪽.

27) C. R. Fontaine, “The Sage in Family and Tribe,”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55쪽. 폰 라드도 부족 지혜가 왕조 시대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G. von Rad, *율법*, 11쪽.

28) E. Gerstenberger, *Wesen und Herkunft des 'apodiktischen Rech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5).

29) 블렌킨십도 전통 사회에서 율법은 부족 지혜를 단순히 전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 Blenkinsopp,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80쪽.

제의 학교(cultic school)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적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이나 소도시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제안했다.³⁰⁾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 이전에 민속 지혜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문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민속 지혜는 가정에서, 족장이나, 부모, 마을의 장로 등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승되었는데, 세계 거의 모든 문화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고대 이스라엘만 이 현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다.³¹⁾

잠언의 지혜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교훈으로 분류되는 잠 1-9장, 그 중에서도 특히 잠 8장의 지혜 연구에 주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에 지혜가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사회에서 기원되었다는 주장은 격언들의 모음들인 잠 10장 이하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전자는 평행이 되는 이집트의 문서들과 비교 연구되면서 교육적 상황에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후자는 구전 전승 가운데서 회자되다가 쓰인 격언이나 속담들의 모음들로 여겨져 왔다. 즉 전자는 학교 지혜를 주로 반영하고 후자는 부족 지혜를 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혜 개념의 기원을 이 둘 중 어느 하나로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머피(R. E. Murphy)는 지혜는 교육적 상황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족 혹은 부족, 궁중 학교, 포로기 이후의 서기관 학교라는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크렌쇼(J. L. Crenshaw)도 지혜의 종류를 가족/부족 지혜, 궁중 지혜, 서기관 지혜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이것은 잠언의 지혜 개념 형성이 학교 지혜 혹은 궁중 지혜나 부족 지혜 이 둘 모두의 영향이자 종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³⁴⁾

30) 그는 아프리카의 부족 잠언들을 연구하면서, 잠언의 짧은 격언들이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참조 C. Westermann, *Roots of Wisdom: The Oldest Proverbs of Israel and Other Peoples*. (Edinburgh: T & T Clark, 1995), 60쪽.

31) K. J. Dell, *빛글*, 52쪽.

32) R. E. Murphy, *Wisdom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1), 9쪽.

33) J. L. Crenshaw, "Method in Determining Wisdom Influence upon 'Historical' Literature," *JBL* 88 (1969), 130쪽.

34) R. E. Murphy, "Wisdom in the OT," *ABD*, Vol. 6, 921쪽.

다른 한편, 랑(B. Lang)은 잠언의 의인화된 지혜가 원래 고대 이스라엘의 여신들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³⁵⁾ 그는 그 여신이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보호자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숭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이 지혜 여신은 창조신 엘(EI), 즉 야훼의 딸이었는데, 다신론 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의 지성 사회에서 이러한 지혜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유일신론자들에 의해 비 신화화되었고 단순한 시적 존재인 지혜로 변질되어 잠언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혜가 이러한 시적 유형의 단순한 의인화로 이해됨으로써 유일신론자들의 반대 없이 유대 경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랑의 이러한 주장은 올브라이트(W. F. Albright)의 제안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올브라이트는 의인화된 지혜가 셈족 여신인 이쉬타르(Ishtar)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었다.³⁶⁾ 그러나 지혜의 기원이 여신이라는 이와 같은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화이브레이(R. N. Whybray)는 지혜의 기원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분석하면서, 신화적(mythological)이라기보다는 비유적(metaphorical)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³⁷⁾ 또한 폭스는 고대 가나안의 신들 중 지혜의 여신으로 알려진 신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³⁸⁾

최근 폭스(M. V. Fox)는 잠언의 지혜 개념이 여러 다양한 모델들이 융합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³⁹⁾ 잠언의 지혜를 언급하는 내용들에는 여 예언자 (잠 1: 20-33), 소식을 전하는 자(잠 1: 20-33; 8: 1-36), 이집트의 여신 마아트, 실제적인 여성, 교사 등 다양한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델들이 합쳐진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스의 이러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잠언의 지혜 개념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혜의 의인화는 단순한 문학적 고안인가? 지혜는 왜 여성으로 표현되었는가? 고대 근동의 지혜 개념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혜의 기원과 관련된 문제 중의 하나는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 지혜가

35) B. Lang, *Wisdom and the Book of Proverbs: An Israelite Goddess Redefined*, (New York: Pilgrim, 1986), 126-36쪽.

36) W. F. Albright, "The Goddess of Life and Wisdom," *AJSL* 36 (1919-20), 258-94쪽.

37) R. N. Whybray, *윗글*(1965), 103쪽.

38) M. V. Fox, *윗글*(2000), 335쪽.

39) M. V. Fox, *윗글*(2000), 333-41쪽.

완전히 세속적이고 실용적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앙과는 무관하게 단지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의 질서만을 다루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맥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세속적 지혜와 신학적 지혜를 엄밀하게 나누려고 했다. 즉 지혜는 원래 세속적인 것이었지만, 후대에 야훼 신학과 접목되는 신학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삶이 밀접하게 연관된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고려해 볼 때, 구전 단계의 잠언들 속에 종교적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⁴⁰⁾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초기 잠언이나 지혜 전승은 종교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요소가 어떤 종류의 것이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그것이 야훼 종교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야훼 종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4. 사회적 배경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의 기원이 고대 근동이든 혹은 이스라엘 내부이든 간에 잠언에 모아진 문서들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문서화되고 현재의 형태로 편집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혜 전승을 문서화하고 편집한 사람들의 정체성과도 연관된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궁중에 지혜 학교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지혜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다.

전도서와 집회서에 의하면, 적어도 기원전 3세기나 2세기 초에 전문 교사들이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가 존재했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왕조 시대 예루살렘 궁중에 지혜 학교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는 구약 성서나 고대 이스라엘의 다른 자료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극명하게 둘로 나뉜다.

먼저, 지혜 학교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들은 구약 성서를 포함한 고대 이스라엘의 자료들에서 궁중 지혜 학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화이브레이는 제 2성전 시대 후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에 전문 교사를 가진 학교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⁴¹⁾ 크렌쇼도 이스라엘의

40) R. N. Whybray, *유태교(1999)*, 322쪽; K. J. Dell, *유태교*, 123쪽.

궁중에 지혜 학교는 없었으며, 지혜 교육은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⁴²⁾ 또한 그는 잠언이 일반 지혜(popular wisdom)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한 전문 교사들, 즉 지혜자들이 서기관이나 신하가 될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여러 문서들을 모아 만든 것이라고 추측했다.⁴³⁾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이스라엘의 궁중에서도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르메어(A. Lemaire)는 고대 근동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제 1성전 시대에 궁중의 지혜 학교가 있었고, 잠언을 포함한 지혜 문서는 지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교과서였다고 주장했다.⁴⁴⁾ 그는 지혜 문서들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위치한 학교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읽혀지고 필사되고 전해졌는데, 지혜 학교의 교사들은 지혜자(sage) 그 자체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추측했다. 히튼(E. W. Heaton)도 고대 이집트의 경우와 연관시키면서, 고대 이스라엘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지혜 문서는 바로 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⁵⁾

고대 이스라엘의 궁중 체계가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의 것을 모방했다고 볼 때에, 예루살렘 궁중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만약 구약 성서 본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 존재를 부인한다면, 구약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부엌, 화장실 등 일상 생활과 연관된 것들의 존재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궁중에 학교가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존재하는 학교 체계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학교 체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지혜 학교와 연관시켜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지혜자들”(잠 22: 17; 24: 33; 렘 18: 18)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즉 이들은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처럼 어떤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group)을 형성

41) R. N. Whybray, *The Intellectual Tradition in the Old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74), 43쪽.

42) J. L. Crenshaw, "Education in Ancient Israel." *JBL* 104 (1985), 614쪽.

43) J. L. Crenshaw, "The Sage in Proverbs,"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212, 216쪽.

44) A. Lemaire, "The Sage in School and Temple,"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65-81쪽.

45) E. W. Heaton, *The School Traditi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뉜다. 지혜자 그룹이 있었다는 주장과 그런 전문직 그룹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화이브레이는 지혜자들로 알려진 문서 집필가들이나 전문가 계층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⁴⁶⁾ 그는 구약 성서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지혜자”란 말은 실제와 연관성이 없는 현대적 용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렌쇼는 지혜자들이라는 전문 계층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서기관들이나 신하들을 교육시키는 전문 교사들이라고 지적했다.⁴⁷⁾ 머피도 지혜자들은 전문 계층을 형성했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불확실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⁴⁸⁾

“지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로 남아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반 류벤(R. C. van Leeuwen)은 램 8장 8-9절의 지혜자들은 지혜로운 서기관들과 사람들일 수 있지만, 램 18장 18절의 지혜자들은 왕의 고문관들(counselors)을 지칭한다고 지적했다.⁴⁹⁾

이제 잠언의 사회적 배경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것은 잠언의 최종 편집자(들)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이다. 즉 여러 지혜 문학 자료들을 한데 모아 한 권의 잠언로 편집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자들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고르디스(R. Gordis)는 잠언을 포함한 지혜 문학이 근본적으로 제 2 성전 시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상류 계층(upper class)의 산물이라고 제안했다.⁵⁰⁾ 그에 의하면, 이 계층에는 지주들, 해외 무역 거상들, 세금 징수 청부인(taxfarmer)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대체사장, 고위공직자들과 결혼 관계로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었다. 화이브레이는 잠언을 포함

46) R. N. Whybray, *윗글*(1974), 54쪽.

47) J. Crenshaw, *윗글*(1990), 212쪽.

48) R. E. Murphy, *윗글*(1990), 3쪽.

49) R. C. Van Leeuwen, "The Sage in the Prophetic Literature,"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304쪽.

50) R. Gordis, "The Social Background of Wisdom Literatur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18 (1943/44), 77-118쪽.

한 지혜 문학을 고대 이스라엘의 지식 계층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그들은 교육을 잘 받은 다양한 지식 계층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지적했다.⁵¹⁾ 폰 라드(G. von Rad)는 잠언의 내용이 단순히 궁중 지식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중류 계층과 지주들이 제기하는 삶에 대한 문제와 더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⁵²⁾ 이상과 같이 잠언의 출처에 대해서 학자들은 상류 계층, 지식 계층, 중류 계층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적어도 중류 계층 이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잠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어느 한 계층만의 산물로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다른 한편, 페르시아 시대 유대 사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잠언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예를 들면, 퍼듀(L. G. Perdue)는 페르시아 시대 유대 사회를 크게 성직자 계열(The Hierocratic Party)과 선각자 계열(The Party of the 'Visionaries')로 나누었다.⁵³⁾ 성직자 계열은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 페르시아가 임명한 통치자들(governors), 온건한 예언자들(centrist prophets), 전통적 지혜자들(traditional sages) 등과 제휴 관계에 있었다. 이들은 페르시아 시대 초기에는 대부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선각자 계열은 초기 묵시문학가들(apocalypticists), 소외된 예언자들, 비판적인 지혜자들 등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몇몇 지도자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지만 바빌론이나 유대 사회에서 모두 무시되었던 자들이었다.

퍼듀에 의하면, 잠 1 - 9장은 아직 안정되지 않은 페르시아 시대 초반, 즉 기원전 6세기 후반과 5세기 초반 사이에 유대 사회의 사회-정치적, 종교적 질서를 합법화하고 유지하며 통제하기 위해서 성직자 계열과 패를 함께 하는 전통적 지혜자들이 쓰고 편집한 것이다. 이 지혜자들은 서기관들을 양성하거나 교육시키는 성전 학교(temple school), 가정 길드

51) R. N. Whybray, *룻글*(1974), 69-70쪽. 이들은 지주들로 상류 계층에 속했다.

52) G. von Rad, *룻글*, 17쪽.

53) L. G. Perdue, "Wisdom Theology and Social History in Proverbs 1-9," M. L. Barre (ed.), *Wisdom, You Are My Sister: Studies in Honor of Roland E. Murphy, O.Carm., on the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Washington, D. C.: CBAA, 1997), 78-101쪽.

(family guild), 공공 교육 기관(civil academy) 등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었는데, 유대 사회 질서의 합법화를 위해 창조 질서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캠프(C. V. Camp)는 잠언에서 여성으로 묘사되는 지혜가 초기 페르시아 시대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신분의 여성의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⁵⁴⁾ 그녀에 의하면,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여성들이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도 가정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지혜 여성(Woman Wisdom)은 바로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잠언을 제 2성전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시키는 이러한 연구는 잠언의 사회학적 시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잠언은 그 동안 역사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잠언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주적 창조 질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어느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역사적, 사회적 상황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잠언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연구는 지혜 문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도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5. 신학적 경향

잠언은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경이나 예언서들처럼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온다는 가르침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언이 인과응보 법칙에 충실한지는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맥캔(J. C. McCann)은 잠언이 가난이나 불행을 하나님의 징벌로만 해석하지 않으며, 반대로 모든 부(wealth)를 하나님의 보응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잠언에 인과응보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⁵⁾ 잠언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이

54) C. V. Camp, "The Female Sage in the Biblical Wisdom Literature," J. G. Gammie and 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90-94쪽.

55) J. C. McCann, "Wisdom's Dilemma: The Book of Job, the Final Form of the Book of Psalms, and the Entire Bible," M. L. Barre (ed.), *Wisdom, You Are My Sister: Studies in Honor of Roland E. Murphy, O. Carm., on the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횡포 비난 등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를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 무조건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언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모든 것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나 개입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잠언의 신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잠언의 신학적 연구의 또 다른 문제는 구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잠언에는 계약, 출애굽, 약속 등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 개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신학을 서술할 때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논의에서 잠언을 제외하거나 매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연관성을 입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즉 잠언을 포함한 지혜 전승이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오경이나 예언서 등 구약의 다른 책들이 잠언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루는 연구이다. 그 동안 전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폭넓게 이루어져 왔고, 구약의 거의 모든 책들에서 지혜전승의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⁵⁶⁾

다른 한편, 최근 후자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⁵⁷⁾ 예를 들면, 헤리스(Harris), 폭스 등은 잠 1장 20-33절이 예레미야, 스가랴 등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⁵⁸⁾ 델은 잠 1-9장의 시 부분 특히 의인화된 지혜를 묘사할 때 예언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었고, 교훈 부분은 신명기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⁵⁹⁾ 또한, 퍼듀는 잠 3장 9-10절, 10-31장 등에서 기도, 희생 제사, 제비, 서원 등 제의적인 요소가 발견된다고 주장했다.⁶⁰⁾

(Washington, DC: CBAA, 1997), 20쪽.

56) 이에 대한 연구는 D. F. Morgan, *Wisdom in the Old Testament Traditions*, (Atlanta: John Knox, 1981)을 보라.

57) 이에 대한 연구는 K. J. Dell, *위글*, 155-87쪽을 보라.

58) S. L. Harris, *Proverbs 1-9: A Study of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Alpharetta: Scholars, 1996), 87-93쪽; Fox, *위글*(2000), 104-105쪽.

59) K. J. Dell, *위글*, 167, 169쪽.

이상과 같은 잠언과 구약의 다른 책들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잠언이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잠언의 신학적 경향이 전통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잠언을 포함한 구약 전체의 신학적 통일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구약사 신학과 창조 신학의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6. 결론

잠언은 지혜 문학 연구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연구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혜의 기원과 개념은 무엇인가? 왕조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에 학교는 존재했는가? 지혜 문학을 만들어낸 지혜자 그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혜 운동과 야훼 신앙은 무관한가? 이러한 문제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 연구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 결과는 잠언 해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잠언 자체의 문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문제도 주요 해석학적 과제로 남아있다. 다양한 문서들로 구성된 잠언이 구조적 통일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잠언이 페르시아 시대에 편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양한 고대 자료들의 사회적 상황과 최종 편집 단계에 반영된 사회적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잠언의 신학적 경향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잠언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법칙을 모든 내용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잠언과 구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구약 신학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고, 통전적인 구약 신학을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해석학적 과제들은 잠언을 공시적이고 통시적으로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60) L. G. Perdue, *Wisdom and Cult* (Missoula: Scholars, 1977), 142-65쪽.

7. 참고문헌

- 박 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제8권 (2000), 133-149쪽.
- 천 사무엘, “구약성서의 지혜문학과 창조신학,” 「기독교문화연구」 2권 (1997), 305-19쪽.
- _____, “구약지혜전승과 신약성서,” 「구약논단」 제18집 (2005), 128-144쪽.
- Albright, W. F., “The Goddess of Life and Wisdom,” *AJSL* 36 (1919-20), 258-94쪽.
- Blenkinsopp, J.,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Bryce, G., *A Legacy of Wisdom*,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79).
- Camp, C. V., “The Female Sage in the Biblical Wisdom Literature,”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85-203쪽.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 Clement, R. E., *Wisdom in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92).
- Crenshaw, J. L., “Method in Determining Wisdom Influence upon ‘Historical’ Literature,” *JBL* 88 (1969), 129-42쪽.
- _____, “Education in Ancient Israel,” *JBL* 104 (1985), 601-15쪽.
- _____, “The Sage in Proverbs,”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205-16쪽.
- Currid, J. 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7).
- Dell, K. J., *The Book of Proverbs in Social and Theologic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Emerton, J. A., “Wisdom,” G. W. Anderson (ed.),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Essays by Members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Oxford: Clarendon, 1979), 214-37쪽.
- Fontaine, C. R., “The Sage in Family and Tribe,”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55-64쪽.
- Fox, M. V., “Ideas of Wisdom in Proverbs 1-9,” *JBL* 116/4 (1997), 613-33쪽.
- _____, *Proverbs 1-9*, (New York: Doubleday, 2000).
- Gerstenberger, E., *Wesen und Herkunft des ‘apodiktischen Rech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5).
- Gordis, R., “The Social Background of Wisdom Literatur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18 (1943-44), 77-118쪽.
- Harris, S. L., *Proverbs 1-9: A Study of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Alpharetta: Scholars, 1996).
- Heaton, E. W., *The School Traditi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Kayatz, C., *Studien zu Proverbien 1-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6).
- Kim, Seenam, *The Coherence of the Collections in the Book of Proverbs*, (Eugene:

- Pickwick, 2007).
- Lambert, W. G.,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Winona Lake: Eisenbraun, 1996).
- Lang, B., *Wisdom and the Book of Proverbs: An Israelite Goddess Redefined*, (New York: Pilgrim, 1986).
- Leeuwen, R. C. Van, "The Sage in the Prophetic Literature",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 1990), 295-306쪽.
- Lemaire, A., "The Sage in School and Temple," J. G. Gammie/L. G. Perdue (eds.),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 1990), 165-81쪽.
- McCann, J. C., "Wisdom's Dilemma: The Book of Job, the Final Form of the Book of Psalms, and the Entire Bible," M. L. Barre (ed.), *Wisdom, You Are My Sister: Studies in Honor of Roland E. Murphy, O. Cam, on the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Washington, D. C.: CBAA, 1997), 18-30쪽.
- McKane, W., *Proverbs* (London: SCM, 1970).
- Morgan, D. F., *Wisdom in the Old Testament Traditions*, (Atlanta: John Knox, 1981).
- Murphy, R. E., *Seven Books of Wisdom*, (Milwaukee: Bruce, 1960).
- _____, *Wisdom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1).
- _____, *The Tree of Life: An Exploration of Biblical Wisdom Literature*, (New York: Doubleday, 1990).
- Perdue, L. G., "Wisdom Theology and Social History in Proverbs 1-9," M. L. Barre (ed.), *Wisdom, You Are My Sister: Studies in Honor of Roland E. Murphy, O. Cam, on the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Washington, D. C.: CBAA, 1997), 78-101쪽.
- _____, *Wisdom and Cult*, (Missoula: Scholars, 1977).
- Rad, G. von, *Wisdom in Israel*, (London: SCM, 1972).
- Sandoval, T. J., "Revisiting the Prologue of Proverbs," *JBL* 126/3 (2007), 455-73쪽.
- Skehan, P. W., *Studies in Israelite Poetry and Wisdom*, (Washington, D. C.: CBAA, 1971).
- Westermann, C., *Roots of Wisdom: The Oldest Proverbs of Israel and Other Peoples*, (Edinburgh: T & T Clark, 1995).
- Weeks, S., *Early Israelite Wis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Whybray, R. N., *Wisdom in Proverbs: The Concept of Wisdom in Proverbs 1-9*, (Chatham: SCM, 1965).
- _____, "Book of Proverbs," J. H. Hayes (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Vol. 2, (Nashville: Abingdon, 1999), 320-23쪽.
- _____, *The Intellectual Tradition in the Old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74).

검색어

잠언

지혜문서

고대 이스라엘

지혜

투고일: 2008년 10월 1일

심사일: 2008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5일

166 천 사무엘 구약논단 제14권 4호(통권 30집) ▶2008년 12월 31일

Interpretive Issues for the Study of the Book of Proverbs

Samuel Cheon,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recent interpretive issues for studying the Book of Proverbs. To do so, it critically reviews its recent scholarly issues which have been discussed for the last 40 years, including the literary structural unity, the origin and concept of wisdom, the social context, and the theological trend. These interpretive problems of the Book of Proverbs are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scholarly issues of the wisdom literature in the Old Testament, because the book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latter. Accordingly, these two areas' research issues are often overlapped, including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origin of the ancient Israelite wisdom? Was there a school or school system in the period of ancient Israelite kingdom? What is the identity of the wise who produced wisdom literature in ancient Israel?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raelite wisdom movement and Yahwism?

This study does not only present major scholars' views of each issue and its related problems with its criticism, but also a direction for its

further study. What is the literary unity of the Book of Proverbs consisting of diverse sources? What is the social context of the ancient sources in the book? What is its social element reflected in its final redactional step? What is the theological trend reflected in the book? How different is its theology from the principle of retribution? What is the theological unity between the book and other Old Testament texts? These questions are not only to understand the Book of Proverbs diachronically and synchronically, but also to present the Old Testament theology as a whole, including the wisdom literature. In shor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tudy in the Book of Proverbs and a direction of its further investigation.

Keywords

Ancient Israel
The Book of Proverbs
Proverb
Wisdom
Wisdom Literature